

# 주도권 잡은 민주, '채상병 특검법' 5월 2일 처리 추진

### 안철수 "찬성표 던지겠다" 밝혀...국힘, 내부 찬성 목소리에 고심 조국 "21대서 통과해야...거부권 오남용하면 국민이 대통령 거부"

더불어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다음 달 2일 열어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을 세웠다.

4·10 총선이 끝나기 무섭게 과반 압승의 기세를 몰아 대야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5월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원하는 민의가 총선에서도 반영됐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도 민의를 저버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앞서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22대 총선을 통해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 폭주를 멈추라고 선언했다"며 "김건희 여사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부터 각종 민생법안까지 거부권 행사를 남발해 온 윤석열 정권에 강력한 경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총선의 민의를 받아들여 반성하고 있다면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며 "채상병 특검법은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윤석열 정권이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범야권 공조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이달 3일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번 총선에서 12석을 얻어 22대 국회에서 원내 3당으로 도약한 조국혁신당도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국혁신당이 참여하지 못하지만 21대 국회 임기 내에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또 거부권을 오남용한다면 국민은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김보협 대변인 역시 기자들과 만나 "(21대 국회에서는) 의석수가 하나밖에 안 되는 소수 정당이라(특검법 통과를) 주도할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민주당이 주도한다면 우리가 힘을 보탤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처리 요구에 '달리마'에 빠진 상태다.

애초 민주당이 무리한 특검법 발의를 반복하고 있다며 비판해왔지만, 이번 총선 참패로 인해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데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당장 22대 총선 당선인을 중심으로 채상병 특검을 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12일 MBC 라디오에서 채상병 특검 본회의 표결 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자칫 당론으로 반대를 밀어붙이더라도 개별 의원을 중심으로 이탈표가 나오면서 특검법이 통과되고 당을 향한 민심은 더욱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을 찬성할 경우 야당의 정치 공세가 더욱 강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특검법에 반대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월 야당 주도국회를 통과했다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넘어온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특별법) 처리도 변수다.

여야는 지난달 특별법 재표결 시기를 총선 이후로 정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사실상 재표결하면 폐기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이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 기존 법안 내용을 두고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해 온 국민의힘은 특별법 논의를 다음 국회에 넘기는 쪽으로 무게를 실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 간 쟁점이 있는 법안을 굳이 21대 국회에서 처리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우선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의 입장을 고려해 재표결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5월 임시회에서 재표결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폐기될 확률이 높은 만큼 시간을 두고 22대 국회에서 유가족의 요구를 좀 더 반영한 특별법을 처리할 수도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민주당 당선인들 현충원 참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연합 운영덕, 백승아 공동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22대 총선 당선인들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尹, 후임 총리·비서실장 인선 고심 또 고심

### 총리, 인사청문회 통과에 방점 김한길·주호영·권영세 등 거명 실장, 원희룡·정진석·김한길 거론

여권이 4·10 총선 패배 후 인적 쇄신에 나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 검증과 여론 동향을 살피며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 패배로 조기 인적 개편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인사를 너무 서둘렀다가 검증이 허술해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오히려 야당에 공세의 빌미만 제공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중요한 자리인데 사람을 찾고, 검증하는 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 부의장을 지낸 정진석 의원, 장제원 의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 없이 거론된다.

모두 정치권 출신의 정무형 인사들이다. 총선을 비롯한 주요 정국 고비에서 관료 출신 참모들

이 한계를 드러냈다는 여론이 많았고, 대통령실 기능의 본질이 고도의 정부 판단이라는 점에서다. 현 정부 들어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이관설 실장은 모두 부처 관료 출신이었다.

특히 이번에 거론되는 후보군은 모두 중진 의원 출신이다. 차기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을 오랜 정치 경륜으로 풀어나갈 인사를 기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말 그대로 대통령의 '비서'라는 점에서 내각을 통괄하는 국무총리와의 인선의 결이 다르다.

원 전 장관은 장관과 광역단체장, 중진 국회의원 등을 거치며 입법·행정·자치 등 모두 경험해본 이력을 지녔다. 정진석·장제원 의원도 정치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책임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진석 의원은 이번에 민심이 많이 돌아선 충청권 인사라는 점도 기용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장제원 의원의 경우 야권에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이라는 프레임으로 공세를 펼 수 있는데다 본인도 용산행을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민주당 출신으로 야권과 네트워크가 두텁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일각에선 이런 부분이 야권에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김 위원장은 국무총리 후보로도 많이 거론된다. 무엇보다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야당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을 적임으로 꼽는 의견이 적지 않다. 총리에는 주호영·권영세 의원 등도 후보군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관련 입장 발표 시기와 형식 내용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거듭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설 비서실장, 실장·수석급 고위 참모진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인적 개편의 내용과 폭을 보고 국정 쇄신의지가 평가될 가능성이 큰 만큼 윤 대통령이 시간을 오래 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늦어도 이번 주 안으로는 윤 대통령의 입장 발표와 인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연합뉴스

## 쏟아져 나오던 정부 정책, 당분간 '공백' 불가피

당분간 정부 정책의 '공백'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로서는 새로운 파격 정책을 내놓거나 기존 정책 기조의 속도를 높이기도, 그렇다고 거야(巨野)의 입장을 반영하는 쪽으로 노선을 수정하기도 애매한 상황에 부닥친 모양새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발 정책이 쏟아져나온 것과 비교하면 '정책 절벽'에 직면한 셈이다.

6~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시작으로 7월 세법개정안 발표, 8월말 내년도 예산안 편성까지는 대형 정책을 내놓을 모멘텀이 없는 실정이다.

이런 공백을 최소화 하려면 대통령실과 정치권 수뇌부 차원에서 남은 임기 3년의 정책 방향성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 주요 당국자들 역시 "시급한 민생 현안들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한다"는 입장 외에 포스트-총선 정책기조에 대한 말을 아꼈다. 기재부 관계자는 14일 "22대 국회의 원(院) 구성까지 최소 두 달 넘게 남았기 때문에 향후 정책입법에 대해 언급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갈라강판 지붕공사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옥상스틸방수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건물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광역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광역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